

# 제주도 바닷가 마을의 민간신앙

문 무 병 | 제주 전통문화연구소 이사장



## 1. 제주도의 해신신앙

제주도에서는 바닷가 마을의 포구를 '개', '성창' 또는 '돈지'라 부른다. 여기에는 '개당', '돈짓당' 또는 '해신당'이라 불리는 잠녀(潛女) 또는 어부를 수호하는 당들이 있다. 이 당은 '바다밭[海田]을 보살피주는 요왕신(龍王神)과 선박(船舶)을 지켜주는 선왕신(船王神·도깨비), 두 신위를 함께 모시는 해신당이 있고, 잠녀당과 어부당을 따로 나누어 모시는 곳도 있다.

어느 경우든지 어부들은 해상의 안전을 위하여 당에 가서 초하루 보름날 새벽에 선왕을 위한 당제를 지낸 다음, 배에 가서 풍어를 위한 뱃고사를 한다. 어부당에 모신 신은 '영감' 곧 선왕신이며, '뱃선왕' 또는 '도깨비'라 한다.

해신당 가운데 어부들이 모시는 신은 뱃선왕이며 도깨비이므로 제주 전역의 보편적인 도깨비 신앙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잠녀들이 모시는 신은 '요왕[龍王]신'이며, 바다밭을 관장하는 해전수호신(海田守護神)으로 '일뤼되[七

日神]와 출신이 같다.

다만 해신당 본풀이에서 요왕신은 '일만 잠수 차지 신' 정도의 직능이 나타나며, 완전한 신격을 갖추지 못한 '개할망', '돈지 할망' 등으로 불리거나 '요왕또', '용녀부인', '요왕국대부인' 등 '일뤼당[七日堂] 신화와 같이 용왕말년의 주지가 나타나는 본풀이도 있다.

## 2. 해신당과 해신의 성격

### 1. 해신당

#### 1) 개당 돈짓당 남당

포구에는 돌을 쌓아 간단한 제단을 만들거나 울타리를 두른 정도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당이 있다. 이러한 당은 해촌 마을에는 자연 마을 단위로 1개씩은 있으며, 어로작업이 있을 때,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당이다.

이와 같이 어부 잠녀들의 생업수호신을 모신 당을 해신당이라 한다. 해신당을 보통 <돈짓당>, <돈지할망당>, <갯그리 할망당>, <개맛 할망당>, <개당>, <남당>이라 하며, 또 잠녀를 지켜주는 당을 <잠녀당>, 어부를 지켜주는 당을 <어부당>이라 한다.

'돈지'는 '물가의 언덕' 곧 '돈치'이고, '개'란 '浦'란 말이니 '돈짓당, 개당'이란 '해변당, 포당(浦堂)'이란 뜻이 된다. 그러나 "개당에는 개날에 간다"해서 '제일(祭日)'은 '포구'를 뜻하는 '개浦'가 개(犬)를 뜻하는 '술일(戌日)'로 바뀌어 <개당>을 <술일당>이라 하고, '개날(戌日)'에만 당에 다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언어 유추에 의해 정해진 제일인 것이다. 한경면 한림읍 등지는 간지(干支)에 의해 제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돈짓당은 <술일당>, <개당>으로 불려지지만, 구좌읍 성산읍 지역은 <개당>의 제일이 매 7일이 되어 <일뤼당>이 되지만 실제로는 택일하여 다닌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신당의 제일은 초하루와 보름이다. 이는 물때와 관련된 제일인 것 같다. 보름날(望日)이 달이 차는 날 곧 만월이며, '퐁어'의 유감주술적 의미를 지닌 제일이기 때문이다.

## 2) 어부당과 잠수당

### (1) 서귀포시 대포동의 어부당

서귀포시 대포동 <큰개물 어부당>은 어부들만 다니는 당이다. 당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비교적 큰 당이다. 대포리 어부들, 특히 어선을 가지고 있는 선주들은 매달 초하

루와 보름날이나 출어 전 새벽에 당에 가서 당제를 지내고, 배에 와서 뱃고사를 지낸다.

이 당의 당신은 '뱃선왕' 또는 '선박 수호신'이며, 어부를 차지한 생업수호신이다. 당은 바닷가 대포리 '큰개맛'에 있으며, 당에는 큰 팽나무와 제단이 있고, 돌담으로 둘러 있는 신목 제단 석원 해변형의 당이며, 당에 갈 때는 당신 매 1그릇, 그리고 뱃고사 매 3그릇이다.

### (2) 제주시 내도동의 잠녀당

내도동 <두리빌레 잠녀당>은 '용녀부인'을 모신 해신당으로 내도동 바닷가에 있다. 당본풀이의 대강을 살펴보면,

이형상 목사가 제주도 신당을 철폐하고 임기를 마치 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광양당신의 노여움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 때 내도동 선주 박동지와 김동지 영감이 이형상 목사를 고향으로 보내 주었다. 목사가 그 대가로 무곡을 주니 제주도로 돌아오는데 풍랑을 만났다.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자, "제주 백성 살리려고 무곡을 싣고 갑니다. 살리려거든 살려줍서"하니 큰 뱀이 꼬리를 틀어 터진 구멍을 막아 배는 무사히 '등북개'에 도착했다. 그 후로부터 뱀을 모셔 부자가 되었다. 원래 김댁의 조상신이었으나, 뒤에 내도동 당신으로 모시게 되었다.

이 '용녀부인'은 계절 따라 좌정처를 바꾼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음력 2월 초하루부터 "일만 잠수 숨비소리 듣고 싶어" 바닷가에 좌정하고, 동짓달 초하루부터



는 “겨울 바람 파도소리에 놀래어” 물에 있는 ‘웃당’에 좌정한다. 이 당은 초하루 보름 이외에는 당에 가서 아무리 정성을 드려도 효험이 없는 당이며, 당신 용녀부인은 용신(龍神) 또는 사신(蛇神)이며 풍신 무역신 어업 수호신 해전수호신이라 할 수 있는 조상신 생업수호신이다.

### 3) 분향당

#### (1) 제주시 건입동 칠머릿당

〈칠머릿당〉은 원래 사라봉 밑 건들개(건입포) 산지향 ‘칠머리’에 있었다. 지금은 산지향 공사로 산이 깎이는 바람에 ‘칠머리’는 해안도로가 되고, 당은 사라봉 뒤쪽 새 부지로 옮겼다. 이 당은 산지와 탐동 등에서 배 부리는 사람, 어부·잠녀들을 관장하고 수호하는 해신당이며, 건입동의 분향당이다.

당은 신석형으로 좌로부터 ‘도원수 감찰지방관’ 그의 처신 ‘요왕국 요왕부인’ 그리고 ‘영등신’ 3신위의 비석을 모신 위패형의 당이다. 음력 2월 초하루 영등신을 맞이하고, 2월 14일에 영등송별제를 한다. 칠머릿당의 〈영등굿〉은 무형문화재 71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당굿이다.

#### (2) 용담2동 7시락당

용담 2동(한두기) 분향 〈7시락당〉은 용연 천변 인적이 드문 곳에 있다. 당신인 ‘용해국 대부인’은 조선 시대에는 목사의 뱃고사를 받아먹고, 어부와 잠녀의 소망을 이루어 준다고 하여, 용담2동 ‘한두기’ 주민들이 생기에 맞춰 택 일하여 다닌다.

당은 규모는 작으나, 용연 오솔길 옆 암벽 위에 있어 신목과 신석, 그리고 지전 물새들이 걸려 있다. 이 당의 분향당신은 생산 물고 호적 장적을 차지한 신이기도 하지만, 해신으로 일만 어부, 일만 잠수를 차지하여 어로의 풍등을 가져다준다. 이 당은 어부 잠녀들이 요왕제를 하고 지를 드린 후, 당에 와서 해상의 안녕을 비는 곳을 한다.

## 2. 해신의 성격

### (1) 요왕신

해촌 마을에는 흔히 ‘개할망’, ‘돈지할망’이라는 여신을 모신 〈돈짓당〉, 〈개당(술일당)〉이 있고, 이러한 신당이 발전하여, ‘요왕도’, ‘요왕국대부인’, ‘용녀부인’ 등 잠녀수호신을 모시는 비교적 발전한 형태의 해신당이 있다. 이 신들은 모두 ‘요왕을 차지한 신’이다.

‘요왕’은 ‘바다’를 의미하는데, 해상 보다는 해저, 즉 바다 밭(海田)을 말한다. 해촌 마을은 해전을 경작하여 살아가는 ‘바다 농사’ 지역이다. 그러므로 ‘요왕신’은 잠수를 지켜주는 해전수호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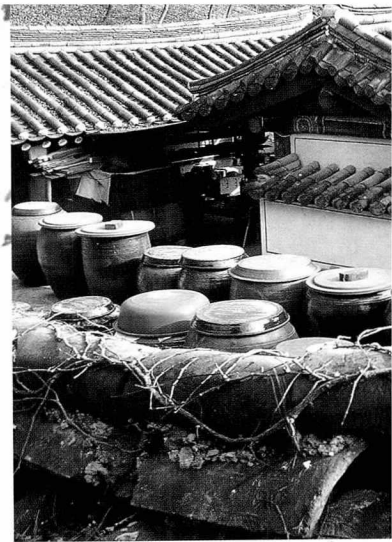
농사보다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해촌 마을의 경우, 여신은 용왕삼녀라는 해전수호신이며 ‘요왕도’라는 명칭으로 불려진다. 이 여신은 잠녀를 수호하는 생업수호신이다. 그러나 어업 보다 농사를 중시하는 해촌 마을의 분향당은 〈이렛당(일뤼당)〉이 보편적이며, 당신은 〈일뤼중저〉 또는 〈일뤼할망〉 등으로 부른다.

이때 남신은 중산간 마을에서 쫓겨난 산신으로 용왕삼녀인 〈일뤼할망〉과 결혼한다. 그러나 식성의 과다 때문에 이들 부부는 용궁에서도 쫓겨나 고향에 돌아와 당신이 된다.

### (2) 선왕신(船舶守護神)

어부를 차지한 신은 ‘개하르방’, ‘남당하르방’처럼 확실한 신명과 직능이 없이 ‘일만 어부를 차지한 신’이 있고, 돈육공희를 받는 신으로 ‘금상님’, ‘중의도’, ‘개로육서포’ 등이 있으며, 뱃선왕 또는 도깨비신으로 생각하는 선왕신(船舶神)이 있다. 어부당의 신들은 돈육공희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해신당에는 돼지 턱뼈가 있는 곳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 당에 갈 때, 제물로 가져가서 제를 지내었다는 증거물이다.

돼지고기를 먹는 식성을 가진 한국 본토에서 들어 온 장





수신인 '새금상포' 또는 사냥을 하는 한라산신 '개로육서포' 등의 남신은 어부를 수호하는 생업수호신이며, 돈육공희의 <돛제

>를 받아먹는 부신적(富神的) 성격을 갖는다. 이는 영감신의 부신적 성격과 통한다.

### (3) 바람의 신

#### ① 표선리 당개 세명주할망

표선면 표선리 당개(당포) '한모살'에 있는 <세명주할망당>은 일반 잠수 일반 어부를 차지한 해신당이다. 특히 이당의 본풀이를 보면, 한라산의 거녀신 '설문대할망' 신화와 유사하다. 다만 여신의 이름 '설문대'가 '세명주'로 바뀐 것 이외에는 신화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여무흥두방 할머니에 의하면, 이 여신은 멀리 수평선에 보이는 선박도 불러들여 파선을 시키는 풍신이라 한다.

당에는 매달 초하루 보름에 다니며, 선박 출어할 때나 물질 나갈 때, 이곳에 와 해상의 안전을 기원한다. 따라서 당개 <세명주할망>은 한라산에서 솟아난 산신이 해변 마을에 좌정하여 풍신으로서 해상의 안전을 관장 수호하는 생업수호신이 된 해신이다.

#### ② 색달동 전신당 요왕도

색달동 <전신당>은 처녀당이며, 어선과 잠녀를 차지한 해신당이다. 처녀의 몸으로 좌정하고 있는 외로운 원령으로, 잘 모시지 않으면 바람을 일으켜 배를 침몰시키는 풍신이며 재앙신이다. 당신은 '개당 할망' 또는 '별금상떡님 애기'라 부르며, 색달리 주민 중, 어부나 잠녀들이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다니는 당이다.

잔치나 초상을 지낸 뒤에는 돼지 머리뼈를 가져가서 신에게 바쳐야 한다. 이 당은 지금은 성천동(베릿내) 개당 옆

에 모시고 있다. 지금은 베릿내 사람들과 색달리민이 같이 이 전신당을 모시고 있다.

## 3. 해신당의 굿

### 1. 돛제(豚肉供犧)

해신당의 의례는 『돛제(豚肉祭)』라는 특징을 갖는다.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제물은 그들의 식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물은 대부분 대동소이하지만, 신의 식성이 돼지고기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따라 '맑은 신'과 '부정한 신'으로 구분되고, 신의 우열이 결정된다. 신화(본풀이)에서 보면 돼지고기를 먹는 신은 부정하다고 쫓겨나 이좌(異坐)하거나 별거(別居)하는 형태로 좌정처가 정해진다.

돼지고기를 먹는 신이 머무는 곳은 한라산 아래쪽 해변 마을이거나 『마폭름(南風)』이 부는 산 아래쪽이다. 돼지고기를 먹게 된 이유는 당신이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먹어야 양이 차는 배고픈 장수이거나 어떤 남편신의 처신 또는 자부신(子婦神)이 임신 중 목이 말라서 돼지털을 태워 코에 찔러 냄새를 맡거나, 돼지 발자국에 고인 물을 빨아먹거나, 돼지 국물을 마시고 요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미식의 맑은 신으로부터 '칼토시 존경내'가 난다고 쫓겨나 크게는 한라산 아래쪽 해변 마을로 작게는 마파람 부는 산 아래쪽에 좌정하게 되는 것이다.

돈육식성의 신은 산육 치병의 여신들과 수렵 목축신, 어업 수호신, 영감신과 같은 남신들이 있다. 돼지고기를 먹는 신은 부정한 신이며, 지위나 서열이 낮은 신이다.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는 식성은 인간의 식성과 유사하므로 돼지고기를 먹는 신은 속화된 신, 다시 말하면 인간에 가까운 신이다.

어부 잠수들을 관장 수호하는 해신당제는 돼지고기나 돼지 턱뼈를 올리며, 풍어제나 영등굿에서 영감신을 위한 젓상을 차릴 때도 돼지 머리를 올린다. 요왕신 선왕신 모

두 돈육식성의 신이기 때문이다.

## 2. 영등굿

〈요왕맛이〉는 바다를 차지한 요왕(龍王)을 맞이하여 축원하고, '바다 밭[海田]의 풍등을 비는 풍농 풍어 굿이며, 바다에 빠져 죽은 넋을 건져내어 위무하여 저승으로 보내는 의사자 천도 굿이다. 보통 잡녀들이 '바다 밭'의 풍요를 기원하는 〈즈수굿〉을 〈요왕굿〉이나 〈영등굿〉이라 한다. 〈즈수굿〉이나 〈영등굿〉의 '굿중 놀이'으로 용궁[海田]의 길을 치워 닦고 '바다 밭'에 씨를 뿌리는 해전경작의례를 〈요왕맛이〉라 한다.

그러므로 〈요왕맛이〉는 '용궁의 길을 치워 닦는 의례'이다. 거칠고 험한 바다 밑의 바위와 등복을 거둬 내고 해전을 평평하게 골라 밭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해전경작의례이다. 〈씨드림〉은 경작한 밭에 해초나 소라나 전복의 씨를 뿌리는 해전파종의례다.

〈요왕맛이〉와 〈씨드림〉의 중간에는 본풀이를 창하는 〈요왕세경본풀이〉와 〈요왕차사본풀이〉의 제차가 있다. 세경은 농신을 말하고, 세경본풀이는 농신의 내력담인 신화다. 해촌 마을에서 미역 전복 소라 등을 키우는 것을 바다

의 농사라 하며, 바다에도 농신인 세경이 있다는 관념에서 세경본풀이를 창하는 것이다.

우도면은 '섬중 섬'으로 바다의 어장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때문에 마을마다 돈짓당이 있고, 어업을 중요시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해상의 안전과 풍어를 위한 돈짓당 신앙이 매우 활발하다.

우도면 〈동천진동 돈짓당〉은 돈짓당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잘 정돈된 당으로 영등굿을 하는 당이다. 도항선이 다니는 포구 동쪽 200m 지점 바닷가에 있다. 울타리를 둘렀으며 돌로 만든 귀 속에 지전과 물색이 있고 돌문을 닫어 둔다. 동천진동 돈짓당에는 이 돌집 안에는 일본의 가미다나(神棚) 식으로 나무판자를 가지고 만든 것이 있는데, 그 속에는 적·녹·황 3색의 물색을 백지 한 장으로 싸 접은 것을 7개 걸어 놓고 있다.

이 당은 주로 잡녀들이 주장하여 다니는 당으로 매해 2월 15일에 영등제를 앉은제로 지내며 이를 〈돈짓제〉라 한다. 특히 우도는 영등신이 떠나는 곳으로 2월 15일이 되면 모든 배의 도항과 출륙을 금한다. 짚으로 만든 배를 띄워 보내는 '배방선'이 끝나고 비로소 영등신이 섬을 떠나면 도항선의 출륙금지해제된다. 